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유근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현장드로잉을 통해 본 일상풍경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안진영

현장드로잉을 통해 본 일상풍경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유근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안진영

인 준 서

안진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6년 Draw+Ing(끌리는 것에 대한 움직임)' 석사 청구전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자신의 내면적 표현방법인 현장드로잉을 전개한 과정을 연구한 논문이다.

예술가들의 조형 활동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시대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예술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었던 요인들을 볼 때 예술가와 작품, 예술가와 재료, 예술가와 주제의 관계 속에서 나온 작품은 진실하다고 했던 것¹⁾처럼 작품의 소재와 표현방법을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표현하는가는 예술의 본질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가고 있다.

삶과 예술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에 작품을 통해 작가의 사상이나 삶을 알아볼 수 있는 과정이 된다. 본인의 초기 작업은, 이모의 집에 있는 유기견을 관찰하면서 쉽게 버려지고 잊혀져가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거즈를 사용하여 치유의 의미를 담은 작업하고 있었다. 작품의 변화가 생기게 된 계기는, 가장 가까운 지인의 병환소식을 접하게 된 후로부터였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왜 사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등, 삶의 당연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었다. 가장 익숙한 장소로부터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하였고, 관찰은 시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와 내재적 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관찰을 통해 드로잉으로 기억을 남기는 일은 작업에

1) 데이비드 제일즈, 테드 올랜드, 임경아 옮김,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 루비박스, 2008, p117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장에 나가 드로잉을 할수록, 풍경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화면에 등장하는 사물이나 사람들, 공기나 물 등은 그들간의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풍경들은, 매일 부딪히는 평범한 공간 일지라도 본인의 작업관점들에 대한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본인은, 일상 속 풍경들을 보면서 변하는 모습에 대해 아쉬워도 하지만 이 순간을 자신만의 조형언어로 남길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생을 통하여 제작된 현장드로잉의 선(線)적 표현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의 시선을 확장시켜 앞으로의 작업에 있어서의 작품의 내용과 표현방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일상에서의 관찰	3
2. 현장드로잉	6
3. 작품설명	11
1) 재료와 표현방법	11
2) 사회적 메시지	16
3) 치유적 메시지	21
III. 결론	24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정해진 길, 공책에 수성 펜, 25x16cm, 2013	4
【작품2】 소정 변관식, 촌락풍일(村落豊日), 종이에 수묵담채, 133.5x420cm, 1957	7
【작품2-1】 작품2의 이동시점에 관한 설명도	7
【작품3】 이 나무, 그 나무, 저 나무,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장지에 물과 수성 펜 그리고 먹, 141x800cm, 2016	8
【작품3-1】 작품3의 이동시점에 관한 설명도	8
【작품4】 이가염, 희간우여산(喜看雨餘山), 수묵에 담채, 1982	10
【작품5】 draw+ing, 장지에 수성 펜, 25x18cm, 2016	10
【작품6】 청계천밤거리, 장지에 물과 수성 펜, 105 x 135cm, 2013	12
【작품6-1】 청계천밤거리(현장드로잉), 공책에 펜, 16x25cm, 2013	12
【작품7】 파울 클레, 버려진 정원, 종이에 펜, 1909	13
【작품8】 가족, 장지에 물과 수성 펜, 67x55cm, 2015	13
【작품9】 빨간불, 초록불, 장지에 물과 수성 펜, 105 x 135cm(x2), 2013	15
【작품10】 까치청춘, 장지에 혼합재료, 83x126cm, 2016	16
【작품11】 표정 찾기, 장지에 혼합재료, 110x33cm(x8), 2016	17
【작품12】 지켜야 하는 길, 재활용 컵에 펜, 130 x 90cm, 2015	18
【작품13】 draw+ing, 장지에 수성 펜, 18x25cm, 2016	19
【작품14】 감정풍경1,1-1, 판화지에 물과 수성 펜, 21.5x18cm(x2), 2015	20
【작품15】 draw+ing, 장지에 수성 펜, 28x42cm, 2016	21
【작품16】 비 운율1, 장지에 물과 수성 펜, 117x92cm, 2016	22
【작품17】 비 운율1-1, 장지에 물과 수성 펜, 92x117cm, 2016	22

I. 서론

본 연구는 예술에 있어서 일상풍경에 대한 회화적 의미를 고찰하고, 현장드로잉에 대한 미학적인 접근을 고찰한 논문이다.

일상풍경이란, 반복되는 삶 속에서 쉽게 지나치는 익숙한 풍경이다. 본인은 그동안 지나쳐갔던 일상의 풍경들 속에서, 눈으로는 보고 지나갔지만 인식하지 못했던 존재들에 주목한다. 본인은 삶을 변화시킬만한 일을 경험한 후로, 자신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 주변의 환경, 건강한 신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삶’과는 반대의 개념인 ‘죽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지만 때론 삶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을 주기도 한다. 본인은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것들에 관찰하게 되었다.

본인은 일상의 순간들을 현장드로잉으로 남긴다. 본인의 석사청구전 ‘Draw+Ing’에서 ‘Draw’라는 뜻은 ‘사람의 마음을 끌다, 마음에 와 닿다.’라는 의미가 있다. 작업을 하는 모든 예술가들의 예술적 동기는 바로 draw에서부터 시작한다. 본인은 작업의 소재와 시작을 본인의 주변에서부터 찾고 있다. ‘Ing’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본인에게 Draw+Ing의 뜻은 마음을 움직일만한 대상을 관찰하고 현장드로잉을 하며 작업으로 심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본 연구의 진행은 작품이 나오게 된 동기와 배경, 작품의 조형적 표현방법에 따른 옛 그림과의 비교연구, 작품의 세부적 설명을 순서로 하여 진행된다. 본 논문 1장에서는, 관찰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찾아가며 작업의 동기를 설

명한다. 2장에서는, 본 작업의 중요한 표현방법 두 가지 특징을 연구하였다. 첫 번째는 본인 작품에 나타난 '이동시점'을 소정변관식의 풍경화와 비교해보고, 두 번째는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현장성'을 이가염의 사생드로잉과 함께 보며 찾아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작품의 도구로써 수성 펜과 물로 작업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파울 클레가 정의한 선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선의 조형방법으로 표현한 작품을 비교해본다. 또한 작품 속에 그려진 풍경들을 통해 사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반복적인 선이 주는 안정감을 통해 현대인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불안함, 긴장감을 치유하는 작업을 설명하도록 한다.

II. 본 론

1. 일상에서의 관찰

사람들에게는 ‘나’, ‘주변’, ‘일상’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런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신이 병이 걸리게 되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조금 더 빨리 찾아온다. 본인은 또한 일상이라는 것이 소중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생긴 이후로 주변의 것들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다.

관찰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예술적 활동이다. 세잔이 사과 하나를 통해 사과가 가진 빛깔, 색깔 등 변화의 흔적을 관찰하고 몇 백 개의 사과를 그리면서 ‘진짜 사과를 찾았다.’라고 말했듯이, 관찰은 예술가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형태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도록 감각적 지각능력을 키운다. 아른하임의 관찰활동은 시지각의 시각기관을 통해 외부환경을 인지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두뇌 작용으로 이어지는 지각능력으로 연결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²⁾

관찰은 사물이나 풍경을 자세히 살펴보는 행동으로 감각적인 기억을 통해 작업을 하는데 시발점이 된다. 감각적인 기억은 눈을 통하여 대상을 인지한 후 대상으로부터 느낀 감각과 감정이다. 본인 작품에 있어서 기억은 조형언어로 표현하게 될 때, 자신의 독특한 표현 방법을 만들어 내게 해주고 감각적

2) 신정아, 「관찰중심 미술표현활동의 효과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15, p1

표현을 기르는데 도움을 준다.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사람들은 하얀 선 안으로 길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하얀 선 안에는 빠르게 지나쳤던 자동차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이 보였고, 나의 선의 호흡도 조금은 늦춰졌다.’ -작업노트 중에서



【작품1】 정해진 길, 25x16cm, 공책에
펜, 2013

일상에서의 관찰은 ‘왜’ 라는 질문을 자주 제기한다. 관찰이 아닌 그저 ‘일상에서 본다.’는 것은 ‘왜’ 라는 질문까지 이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왜’ 라는 질문은 가장 본질적인 것과 마주하게 되고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왜’ 라는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새롭게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뜻한다.³⁾ 【작품1】은 본인은 횡단보도를 그리면서 ‘왜 초록불에 정해져있는 길에서 건너야하며 빨간불엔 기다렸는지’ 당연한 사실임을 알고도 질문이 생겨났다. 본인은 이런 일상에서의 관찰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상의 관찰로부터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고, 낯설음을 찾으면서 더 재미있는 예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최중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 사랑, 2000, p80

2. 현장드로잉

현장(現場)드로잉이란 어떤 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내면적 표현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본인에게 감각적으로 느낌을 받을 만한 일을 말한다.

현장드로잉은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을 남길 수 있다. 사진과 영상은 객관적인 표현방법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이미지가 현상되지만, 현장드로잉은 이동하면서 관찰했던 경험과 현장에서 느낀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장드로잉의 두 가지 특징으로 나뉘 볼 수 있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이동시점’을 소정변관식의 풍경화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본인의 작품과 이가염의 사생 드로잉에서 함께 나타나는 ‘현장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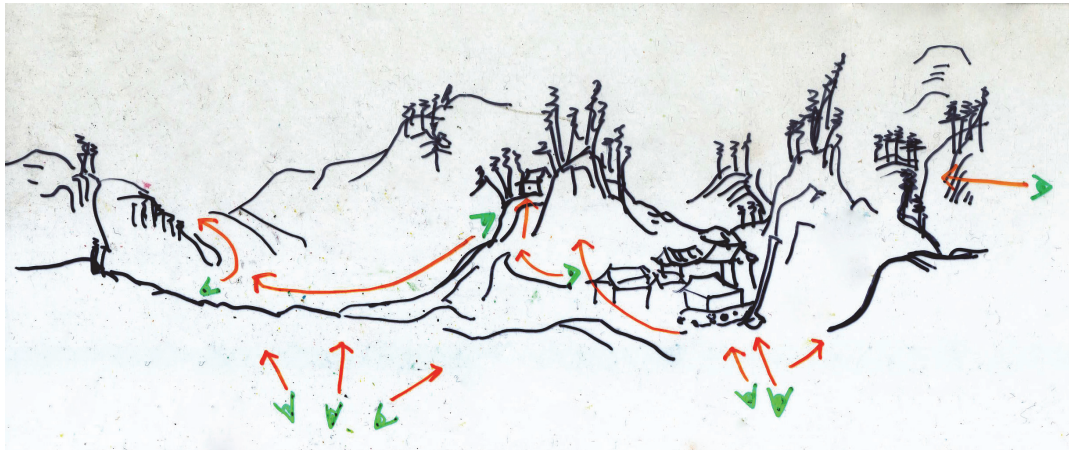
첫 번째, 현장드로잉 안에는 ‘이동시점’이 있다.

현장드로잉 안에는 어떤 공간보다도 자유롭다. 동양의 옛 그림은 하나의 고정되지 않은 시점으로 자유롭게 공간을 그렸다. 이동시점이란 한 화면 안에 하나의 정해진 시점이 아닌 여러 각도에서 보는 시점을 넣어 시선의 방향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의 변화도 보여주는 시각적 표현방법이다. 이동시점에서 생기는 투시방법인 산점투시⁴⁾는 동양의 산수화에서 많이 나타나게 된다. 소정 변관식의 작품과 본인의 작품을 함께 보면서 이동하는 시점의 방향을 찾아보도록 한다.

4) 화가가 고정된 시야의 제약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시점에서, 서로다른 시야 내의 사물을 관찰하여 얻은 결과를 한 폭의 작품 속에 서로 잘 어울리도록 구성하여 화면 안에 몇 개의 서로 다른 시평선과 초점이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동양화의 이해』, 시각과 언어, p39,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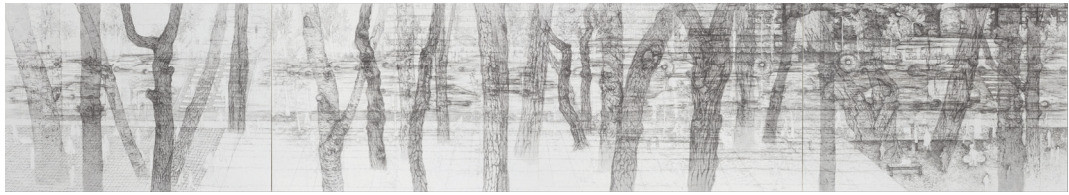


【작품2】 촌락풍일(村落豐日), 종이에 수묵담채, 133.5x420cm, 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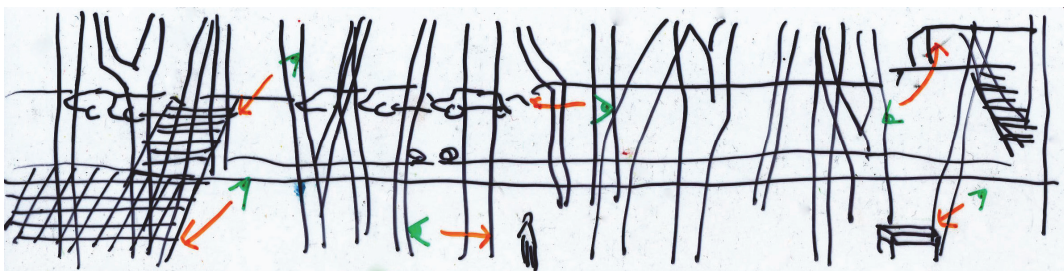


【작품2-1】 작품2의 이동시점에 관한 설명도

【작품2-1】에서 산의 봉우리들 모습에서 다른 시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오른쪽 정면부터 길을 걸어가며 바로 정면에 있는 정자에도 가서 앉아 있으면서 왼쪽으로 하단에 보이는 강과 다리를 사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면 오른쪽 하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길은 멀리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길목으로 보인다. 작가는 돌아다니며 관찰하고 이를 한 화면에 이동 시점으로 나타냈다.



【작품3】 이 나무, 그 나무, 저 나무,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장지에 물과 수성 펜 그리고 먹, 141x800cm, 2016



【작품3-1】 작품3의 이동시점에 관한 설명도

【작품3】 본인의 작품에서도 이동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작품3-1】 먼저 두 개의 레이어가 보인다. 하나의 레이어는 길거리에서 본 나무를 가까이 다가가 바라본 시점이다. 다른 레이어는 전체적으로 카페에 앉아서 본 시점 같아 보이지만 오른쪽 상단에 있는 상가건물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고 있고, 왼쪽 하단의 바다무늬는 위에서 아래를 보는 시점으로 표현이 되었다. 본인이 의도한 것 보다는 자신이 경험하고 관찰한 것을 공간을 구성할 때 자연스럽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장소의 이동시점 뿐만 아니라 시간의 이동시점도 보인다. 화면의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시간을 나타내었다. 아침의 출근길의 모습부터 중간부분부터 가로등이 켜지면서 퇴근길의 바쁜 모습이 보인다. 이는 본인이 이 장소를 자주 거닐며 관찰하며 다양한 시간대에 관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투시방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관찰방법’과 관련이 있다. 이동시점은 초점은 통일되지 않았으나 시선의 방향

이 자연스러워 그림을 보는 즐거움과 작가의 경험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현장성’이다.

“멀리서 보는 것파, 직접 그 곳에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현장성에
대해 루마니아의 한 예술가

직접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면서 관찰하여 표현한 드로잉들은 사진기가 표현해 줄 수 없는 것을 준다. 중국의 화가 이가염⁵⁾은 “사생의 목적은 창작이지 단지 눈앞에 있는 것을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만일 기록을 하고 싶다면 사진기를 쓰면 된다. 사실, 사진기를 능가할 시각적 기록 장치는 없기 때문이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한 사과를 보고 어떤 이는 ‘빨갭게 잘 익었네.’, ‘맛있겠다.’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이는 ‘사과가 너무 빨간 거 아니야?’, ‘혹시 인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사과를 기른 거 아니야? 안 먹을래.’ 하고 서로 같은 사과를 보고 다른 반응이 나온다. 그림도 마찬가지이다. 현장드로잉은 똑같은 풍경일지라도 개인이 느낀 것을 각자의 감각에 맞는 조형방식으로 표현을 한다. 같은 장소여도 모두가 다른 그림이 나온다. 하지만 사진기는 다르다. 기계는 하나의 답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풍경 그대로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찍어낸다. 현장성은 이처럼 자신의 조형방법을 개성적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

현장성이 잘 드러난 이가염의 사생드로잉과 본인의 현장드로잉을 보면서 사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기로 한다.

5) 이가염(李可染, 1907년 3월 26일 - 1989년 12월 5일), 중국 근대의 저명화가, 시인으로 화가 제백석(齊白石)의 제자다. 대표작으로는 <여강승경도>, <만산홍편>, <정강산> 등이 있으며, 대표화집으로는 <이가염 수묵사생화집>, <이가염 중국화집>, <이가염 화우> 등이 있다. 베이징관광국 한글 공식 사이트



【작품4】 이가염,
희간우여산(喜看雨餘山),
수묵에 담채, 1982



【작품5】 draw+ing, 장지에
수성 펜, 25x18cm, 2016

【작품4】는 현장성이 잘 드러나 있다. 전체적으로 축축한 수묵의 표현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비온 뒤 산이 보이는 풍경을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산위에 걸쳐져 있는 안개들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만큼 그 때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 시점이나 형태들을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현장에서 그린 그림은 들리는 소리, 냄새, 공기들을 느낄 수 있다.

본인의 【작품5】는 【작품13】의 토대가 되었던 현장드로잉이다. 비가 오고 있는 청계천의 풍경을 그린 현장드로잉이다. 화면에서 얼마 되지 않은 선을 사용하여 서둘러 비를 피하려고 걸어가는 사람들과,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을 표현하였다. 외곽이 뚜렷하진 않지만 언제, 어떤 날씨에, 이곳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현장성에 있다.

위의 작품들은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현장에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에 집중하여 현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작품 설명

1) 재료와 표현방법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 주재료는 수성 펜과 물이다. 평소에 드로잉 공책과 펜을 준비하여 사물이나 풍경을 관찰하고 작품의 소재를 찾으러 다닌다. 현장 드로잉을 토대로 큰 화면에 작업을 할 때에는, 현장성을 반영하기 위해 그 때 사용했던 수성 펜으로 그림을 그린다. 0.5mm의 얇고 가느다란 선은 본인이 바라보는 것들을 진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재료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가장 익숙하고 들고 다니기 편리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다. 작품의 재료는 가늘고 가벼운 재질의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세밀함과 작고 연약한 것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집합적인 힘을 작품에 투영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본인은 회화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인 선을 사용하여 작업에 표현한다. 파울 클레가 정의한 선의 특징을 살펴보면 선은 회화의 기본적 3가지(선, 명도, 색)중 하나이며 가장 제약된 요소로서, 명도는 크기와 무게, 색은 크기와 무게, 그리고 질(質)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선은 오직 단순한 크기의 실체이라고 말하고 있다. 순수한 선은 크기를 나타내지만 '구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크기, 무게, 질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클레는 말하고 있다. 또한 구성이라는 것은 의식적이고 창조적인 노력의 절정으로 작품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⁶⁾

선은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개성을 보여준다. 선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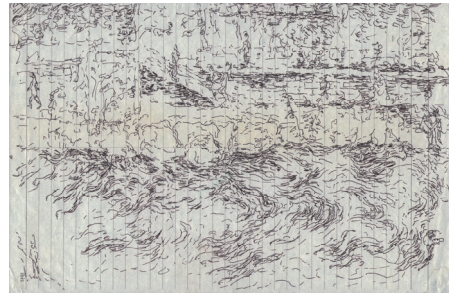
6) 파울 클레, 『파울 클레 현대미술을 찾아서』, 박순철 옮김, 열화당. 1979, p21, 29

람들의 글씨체가 모두 다른 것처럼, 같은 장소나 같은 사물이 모두 다른 감성으로 표현된다. 본인은 선을 가지고 조형적 연습을 통해 본인만의 독특한 조형방법을 얻을 수 있었다. 독특한 조형방법이란 위에서 클레가 언급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본인에게 있어서 선은 단순히 외형만을 따는 것이 아닌 몸매 감각을 익히고 표현하는 신체적, 정신적 표현이다.

본인의 작품에서 선은 불완전함에서부터 시작한다. 손을 떼지 않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 한 번에 끝은 실선을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인은 대상의 형태를 똑같이 그리는 것을 두려워했고, 답답해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화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밤에 드로잉 노트를 들고 나가서 오로지 감각에만 집중하여 표현하는 연습을 하였다. 【작품6】는 처음으로 내면적 감각에 집중하여 표현한 현장드로잉을 토대로 구체화하여 그린 작품이다. 형태를 확실히 이어주는 실선보다는 간격이 있는 짧은 선들로 표현이 되었다. 본인에게 있어 선과 선 사이의 공간들은 화면 속 사물간의 공간이자, 호흡 속도이기도 하였다.



【작품6】 청계천밤거리, 장지에 물과 수성
펜, 105 x 135cm, 2013



【작품6-1】 청계천밤거리(현장
드로잉), 공책에 펜, 16x25cm,
2013

【작품7】 파울 클레⁷⁾의 사생드로잉을 보면 연구자의 선과 유사한 간격이 있는 짧은 선을 발견할 수 있다. 선의 움직임은 대상들의 위치에 따라 그어져 있다. 정원에 떨어진 풀들의 방향으로 바람의 움직임을 따라 대상에 어울리는 선을 사용하여 표현해 주었다. 본인의 작품도 이와 비슷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작품8】에서 하단부분에 노랗게 변했던 갈대가 바닥에 기울어져 있는 부분을 방향을 따라 선을 그었다. 뒤에 있는 버들나무는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방향을 따라 표현해 주었다.



【작품7】 파울 클레, 버려진 정원,
종이에 펜, 1909



【작품8】 가족, 장지에 물과 수성펜,
67x55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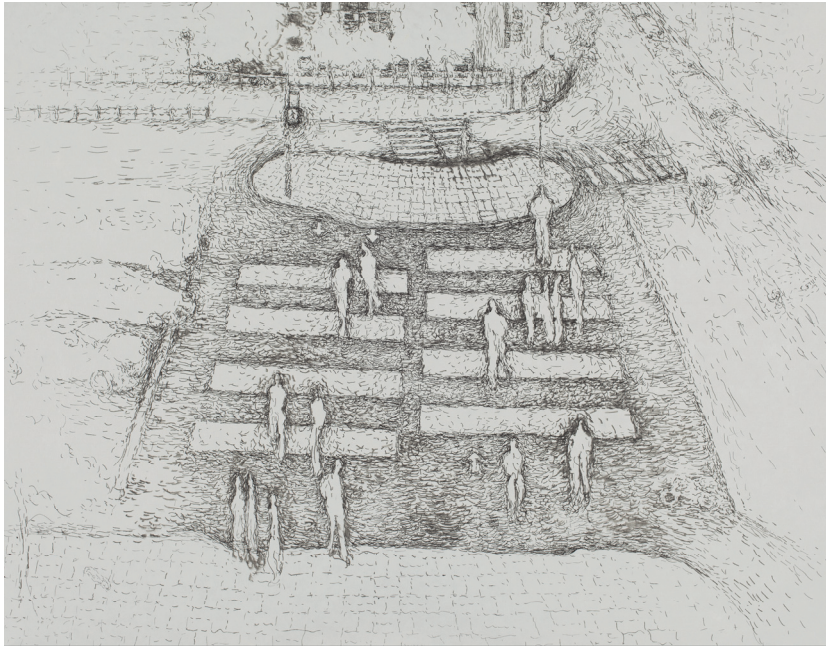
7) 파울 클레 (Paul Klee, 1879년 12월 18일 - 1940년 6월 29일)는 스위스 화가이다. 국적은 독일이다. 그의 작품은 표현주의, 입체파, 초현실주의 등 여러 다양한 예술 형태의 영향을 받았다. 그와 그의 친구인 러시아 화가 칸딘스키는 예술과 건축의 학교인 바우하우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작으로는 <새로운 천사>, <지저귀는 기계>, <고양이와 새>등이 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본인의 작품에는 ‘움직임’을 선으로 묘사한 것들이 많다. 어떤 대상을 빠르게 관찰하여 즉흥적으로 그리는 제스처드로잉에 속한다. 제스처드로잉은 움직임을 포착하여 그리기 때문에 동작의 묘사가 형태 묘사보다 중요하다. 선은 단지 윤곽선에 그치지 않고 형태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빠르고 즉흥적으로 그려지며 형태의 뉘앙스보다 주제의 순간적인 변화를 중시한다.⁸⁾ 제스처드로잉은 움직임에 집중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선들이 나오게 된다. 흔히 경험하는 일로 우리가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를 사진기로 찍을 때 셔터스피드를 느리게 고정시키고 찍으면 뚜렷한 윤곽선보다는 흐릿한 이미지가 몽개져서 나오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윤곽은 인식하기 힘들지만 주변에 접촉되는 공기와 속도를 여러 접의 선으로 나타낸다.

【작품9】 작품을 보면 화면 속 움직이고 있는 대상들을 여러 선을 겹쳐서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자동차 보다는, 느린 속도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선의 차이를 주어 사용하였다. 움직이고 있는 대상을 따라 반복적으로 선을 긋고 물을 묻혀 번지게 하여 시선이 움직일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현장드로잉을 할 때는 눈과 손이 함께 움직이면서 달려가는 차에 집중하여 표현하였다. 외곽을 따라 그리는 윤곽 드로잉과는 다르게 화면에 생동감과 움직임을 주고 있다. 선을 만들어 낼 때, 화가는 의도적으로 형태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몸(손)의 능동적인 감각과 수동적인 감각에 맡기면서 선 자체가 모험하는 것을 따라간다.⁹⁾ 본인의 표현방식은 몸에서 나오는 감각적인 행위이다. 이처럼 본인의 표현방법을 사용하여 작품을 분석한 것을 다음 장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8) 데이비드 A라우어, 스테플른 펜탁, 이대일 옮김, 『조형의 원리』, 예경, 2004, p122

9) 한정선, 「메를로-퐁티의 파울 클레 : 그림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 『철학과 현상학 연구』, 2007, p66



【작품9】 빨간불, 초록불 장치에 물과 수성 펜,
105 x 135cm(x 2), 2013

2) 사회적 메시지

본인은 작품을 통해서 사회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고 있다. pick me 세대¹⁰⁾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 바쁘게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상 속 풍경을 통해 보여준다. 본인은 현장(사회적 문제를 발견한 일상 속 풍경)에 직접 찾아가 감각적인 경험을 작고 가느다란 선으로 드로잉하며 기억을 남긴다.



【작품10】 까치청춘, 장지에 혼합재료, 83x126cm, 2016

【작품10】 작업실로 가는 길에 까치가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자기 몸 만한 크기의 나뭇가지를 들고 나무 위에 올리고 떨어뜨리기를 반복하였

10) 1980년대 후반~1990년대 후반 출생한 사람들로, 사회에서 선택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대를 일컫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네이버 지식백과

다. 계속 지켜보다가 나뭇가지를 반으로 쪼개어 놓았더니, 까치는 나뭇가지를 나무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본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본인을 포함하여 청춘들의 모습과 닮아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바닥에 떨어진 수많은 나뭇가지와 추위에 노랗게 변해버린 누워있는 갈대들은 우리의 꿈을 위해 실패했던 흔적으로 보였다. 실패를 반복하지만 결국 자기 집을 깨끗하게 짓는 까치를 보면서 웬지 모를 용기가 생겨났다. 작업의 표현은 까치집과 나뭇가지를 제외하고는 선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갈대들과 들풀들을 보면서 드로잉 북보다는 화면을 보면서 선을 그었다. 마지막에는 까치집과 나뭇가지들은 색을 사용하여 묘사해주었다. 색을 사용하여 묘사한 것은 까치집을 강조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색칠하고 있는 행위가 본인의 꿈을 완성해나가는 행위이기도 하였다.



【작품11】 표정 찾기, 장지에 혼합재료, 110x33cm(8), 2016

【작품11】 길거리에는 나무가 많다. 우리는 하루에 길을 지나면서 몇 백 그루의 나무를 지나친다. 본인은 이 나무들을 세밀하게 관찰하였다. 나무를 관찰하기 전에는 그저 이 나무가 저 나무인줄만 알았는데, 나무들도 표정과 특징이 있었다. 본인은 나무의 색깔을 서로 다른 인종의 피부색으로 색칠해 주었다. 그들 각각의 가치를 존중하며 인정해주고자 하는 표현이었다. 우리 주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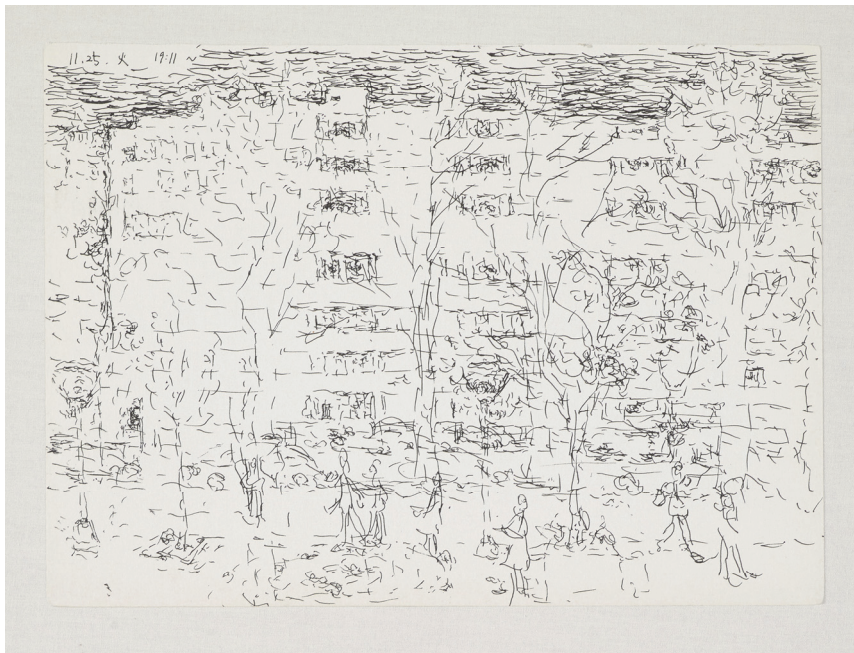
는 서로 다른 피부색과 다수의 사람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 다른 행성에서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인간이라는 종을 만났을 때 아마도 한 종류의 ‘인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내가 바라보고 관찰한 나무들을 대하는 태도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한다.



【작품12】 지켜야 하는 길, 재활용
컵에 펜, 130 x 90cm,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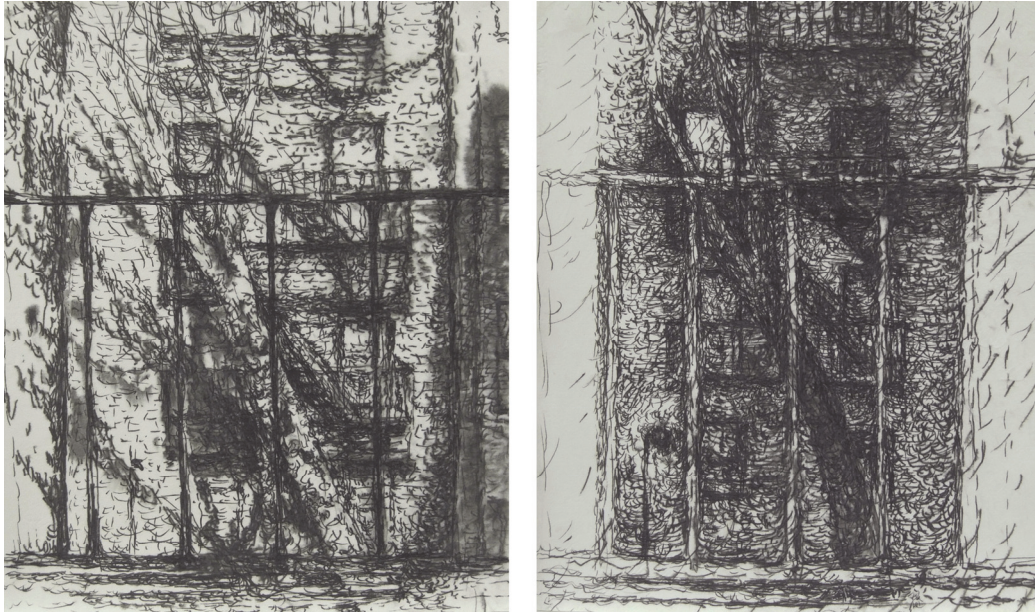
【작품12】 일상에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질서가 있다. 질서는 몸에 익숙하게 되어 습관이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까만 바탕 속 하얀 선 안에 들어 와서 걸어가는 본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고 파란불에는 차가 멈추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 새로움을 느꼈다. 횡단보도 안에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다. 빨간불에는 횡단보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겹이 많이 생긴다. 초록불에는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면서 자동차들이 지나간 흔적, 타이어 냄새, 속도, 열기가 난다. 아무런 의심 없이 지나쳤던 횡단보도는 매번 변하고 움직인다. 이 작품은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재활용 컵을 모아 그 위에 펜으로 그린 작업이다.



【작품13】 draw+ing, _장지에 수성펜, 18x25cm, _2016

【작품13】은 작품1의 토대가 되었던 현장드로잉이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드로잉이다. 쉽게 지나치는 것들에 대해 관찰하며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라는 마음에 현장드로잉을 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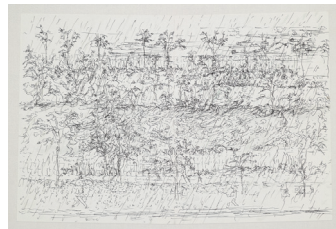
【작품14】 감정풍경1,1-1, 판화지에 물과 수성 펜, 21.5x18cm(x2), 2015

관찰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작품14】는 빛을 통해 흘러간 시간을 보여주는 풍경이다. 시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이나 변화하는 주변 환경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 본인은 이런 시간이 특별한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들이 있기에 특별한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많이 느낀다.

3) 치유적 메시지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¹¹⁾라는 것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일상에서의 소음을 반복적인 반응을 통해 치유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본인도 어떤 일을 집중할 때나 쉬고 싶을 때 ASMR을 들곤한다. ASMR중에는 비닐봉지소리나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발자국소리 등이 있는데 본인은 자연에서 들리는 반복된 소리를 좋아한다. 새소리나, 물이 떨어지는 소리, 바람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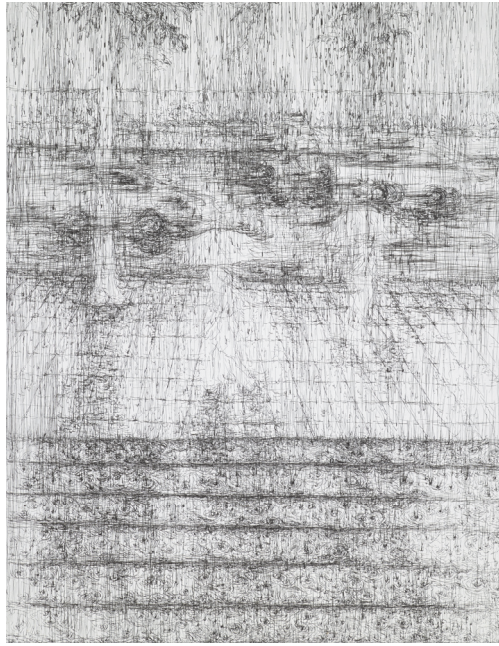
반복은 모여서 리듬이 된다. 리듬은 고유의 규칙성이 만들어 내는, 되풀이되는 모티프를 따라 우리의 눈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¹²⁾ 우리가 손으로 책상을 반복해서 두드리면 소리와 박자가 생긴다. 리듬은 박자를 늘리거나 줄임을 반복함으로써 발생한다. 리듬은 음악에서 뿐만 아니라 시각적 조형안에도 리듬은 존재한다. 본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소리 중 비 오는 소리를 관찰하면서 청각을 시각적인 표현 방법으로 나타내 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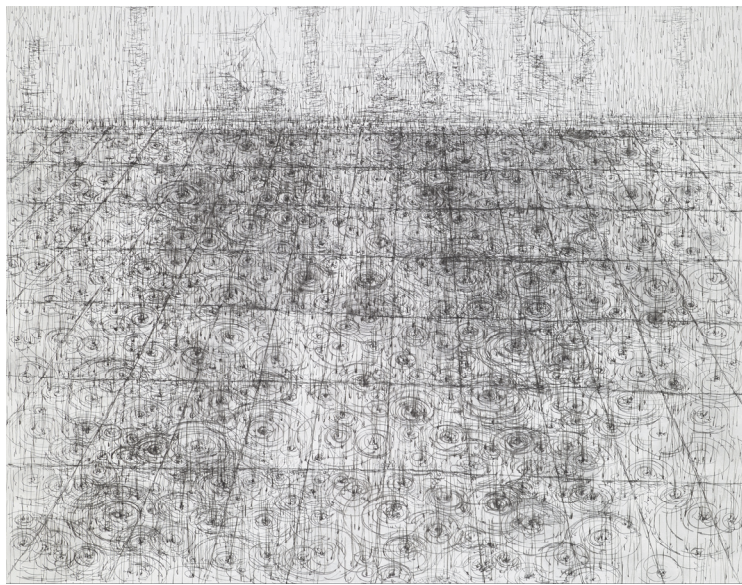
【작품15】 draw+ing, 장지에 수성펜, 28x42cm, 2016

11)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으로 바람이 부는 소리, 연필로 글씨를 쓰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을 제공해 준다. 힐링을 얻고자 하는 청취자들이 ASMR의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가 트리거(trigger)로 작용해 Tinggle(tingle, 기분 좋게 소름 돋는 느낌)을 느끼게 한다. 2010년 무렵 미국, 호주 등지에서 유통되었으며 국내에서도 팟캐스트, 유튜브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네이버 지식백과,

12) 데이비드 A라우어, 스테플튼 펜탁, 이대일 옮김, 『조형의 원리』, 예경, 2004, p100



【작품16】 비 운율1 장지에 물과
수성 펜 117x92cm 2016



【작품17】 비 운율1-1 장지에 물과 수성 펜 92x117cm
2016

【작품16】 , 【작품17】 은 비가 오는 청계천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이 작품들은 현장드로잉을 토대로 큰 화면의 작품에 옮겨 작업을 한 것이다.

【작품5】 에서는 현장에서 들리는 빗소리와 비 사이로 지나가는 자동차와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들에 집중하였다면, 【작품16】 , 【작품17】 는 반복된 선의 표현으로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면서 작업을 하였다. 반복적으로 청각에 미치는 영향과 반복적으로 선을 긋는 행위는 본인과 본인의 작품을 보는 관객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선의 방향성은 비가 내리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표현하여, 관객의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가운데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멀리서 보면 짧은 선들과 비정형적인 선들로 뿌옇게 보이지만 거리를 가까이 할수록 비가 내리는 곳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도록 하였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일상적 삶의 가치를 관찰을 통해 찾아보고 이를 현장드로잉을 통한 선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작업의 과정부터 조형적 표현방법을 연구하면서, 연구자의 삶과 예술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으며, 함께 변화하며 발전해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삶 속에서 예술을 발견하며, 예술 속에서 삶을 찾는 것은, 본인의 삶에 있어서 질을 높이고 작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연구의 진행은 관찰을 통하여 작업의 소재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자주 다니는 거리 속 풍경을 관찰하며 일상 속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찰은 작품의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었고, 자신의 조형언어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관찰을 통한 현장드로잉은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며, 감각과 경험을 자신의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는 일기장이 되었다. 또한 현장드로잉의 특징을 본인과 다른 작가의 작품을 비교해 보면서, 시대는 다르지만 사생을 통해 표현된 현장성과 화면의 구성을 자유롭게 해주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본인은 작품을 하면서 수성 펜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선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파울 클레가 선의 개념을 정의한 연구를 보면, 선은 회화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선, 명암, 색) 가운데 오직 크기만을 나타내는 조형요소지만, 작가의 구성과 창조적적인 노력으로 선이 가지는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본인은 선이 가지는 순수성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조형방법을 심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조형방법의 선의 특징을 연구하면서 본인은 작업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반영하는 방법과 선이 가지는 신체적, 정신적 표현을 활용하여 좀 더 뚜렷한 본인의 조형언어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본인의 작품에서 기억이라는 것을 모노톤의 무난한 색들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지나간 시간이며 스쳐지나갔던 것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상 은 평범하고 반복되는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흘러가는 것을 인지하기 힘들다.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이 내일도 다시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파울 클레가 ‘보이지 않은 것을 보이게 한다.’ 는 그의 말처럼 우리는 매 순간 관찰하며 그림으로 남기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지금 이순간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이를 관찰하며, 본인만의 독특한 조형언어를 찾으며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위해 발전시키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 사랑, 2000
- 존 듀이, 박철홍 옮김, 『경험으로서의 예술1』, 나남, 2016
- 한병철, 김태환 옮김, 『시간의 향기-머무름의 기술』, 문학과지성사, 2016
- 진조복, 김상철 옮김, 『동양화의 이해』, 시각과 언어, 1999
- 마틴 게이퍼드, 주은정 옮김, 『다시, 그림이다-데이비드 호크니의 대화』, 디자인하우스, 2013
- 데이비드 A라우어, 스테플른 펜탁, 이대일 옮김, 『조형의 원리』, 예경, 2004
- 조광제, 『미술 속, 발기하는 사물들』, 안티쿠스, 2007
- 데이비드 제일즈, 테드 올랜드, 임경아 옮김,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 루비박스, 2008
- 바실리 칸딘스키, 권영필 옮김,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칸딘스키의 예술론』, 열화당, 2007
- 루돌프 아르하임, 김춘일 옮김, 『미술과 시지각, 기린원』, 1988
- 파울 클레, 박순철 옮김 『파울 클레 현대미술을 찾아서』, 열화당, 1979

학위논문

- 안동일, 「선(線) 표현을 통한 현대인의 일상모습 연구-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2011
- 이재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회화에 나타나는 이동시점(異動視點)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 정규형, 「드로잉으로 기록된 일상 이미지 연구-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5
- 신정아, 「관찰중심 미술표현활동의 효과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15

학술논문

한정선, 「데를로-퐁티의 파울 클레 : 그림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 『철학과 현상학 연구』, 2007

ABSTRACT

Everyday scenery seen through field drawing

- With a Main Focus on the Author's Work -

AHN, Jin young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process of field drawing, an expressive method of the inner self in our everyday lives, based on my master degree exhibition 'Draw+Ing (Movement on the attractive)' in 2016.

The activities of artists have an influence on society, and furthermore play a role in reflecting the period. Looking at factors that have made art valuable in the past, like the saying that works that have been deriv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sts and their works, art material and the artists, artists and their subjects are true, how genuinely the subject and the expressive method of the works are portrayed is becoming the standard in measuring the essence of art.

Since art and life are closely related, it can be a process in understanding the lives or the thoughts of artists through their works. My

initial work was working on the meaning of healing using gauzes as I was interested in things that were easily forgotten or taken for granted by observing the once abandoned dog in my aunt's house. The reason for change in my works was after when I heard the news of an illness of my close acquaintance. As my perspective on life changed, I started asking numerous questions about life such as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Why do we live?' 'What do we live for?' I started observing the surroundings of the environment that I was most familiar with, and realized that observation can evoke psychological problems and intrinsic senses in addition to visual abilities. I became to realize that recording my memories by drawing through observation is an important time for me not only for my works but for me to remember the moments in my life.

The more I draw in the field, I discovered tha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scenery and the society that we live in. Objects or people, air or water that appear on the screen all have mutually close relationships, and live as they influence each other. I realized that such scenery, though it may be the ordinary space that we encounter everyday were giving me inspiration on the perspectives of my own works.

Though it is a little sad to see the changes in the scenery in our daily lives, I am grateful that I can record this moment in my own formative language through my own works. This thesis explores the line expressions and characteristics of field drawing produced through sketch works from nature, and aims to develop the expressive methods and the contents of works by expanding my own perspectives.